

책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세

정규용

문학평론가·중앙일보 논설위원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藏書家라 하고, 책을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愛書家라고 한다. 이와 관련한 이런저런 賞들도 있다. 책이 따돌림을 당하고 팔시를 받는 우리네 현실에서 책을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런 분들이 모범으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장서가와 애서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소 모호한 일면이 있다. 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책을 소장할 까닭이 없고, 책을 소장하지 않는 사람이 책을 사랑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은 책을 소장하게 마련이고,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책을 사랑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책과 관련한 이런저런 기억들을 되살려보면 책을 사랑하지 않는 장서가도 있고, 책을 거의 소장하지 않는 애서가도 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일찌기 실업계에 투신하여 크게 성공한 옛친구의 집에 초대 받아 간 일이 있었다. 드넓은 공간에 호화로운 가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응접실과 거실 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는 책들이었다. 단행본 따위는 별로 없었고 거의가 백과사전류의 전집물들이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에서는 구하기조차 어려운 외국의 책들이었다. 그 많은 책들이 그 친구에게 '필요한 책'이 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웬 책이 이렇게 많냐고 물었더니 대답인즉 '전시용'이라는 것이었다. 덧붙여 말하기를, 손님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대된 손님들이 그 책들을 보면 자기를 책을 사랑하고 독서도 많이 하는 특이한 기업인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친구는 분명 장서가일 수 있지만 애서가로도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책들은 家具의 일종이고 장식용일 뿐 주인에 의해 사랑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전시용이나 장식용으로 사랑하는 것도 책을 사랑하는 것에 속한다면 문제는 물론 달라지지만 말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또다른 옛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독서광으로 불릴 만큼 많은 책들을 읽었다. 궁핍한 가정형편 탓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책을 사서 읽는 법이 없었고 모든 책을 도서관에서 대출해 읽거나 친구들로부터 빌려서 읽었다. 그의 집엘 가보면 꽂혀 있는 책들이란 교과서나 학업에 관련된 참고서 따위가 고작이었다. 더욱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은 그가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이 잡힌 후에도 책을 사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는 여전히 많은 책을 읽었고, 그 책들을 대가가 빌린 것들이다.

책이란 읽고 나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책을 늘 가까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그는 애서가임에 틀림없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책 그 자체가 아니라 책의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책에 대한 인간의 이같은 양면적인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책을 사랑한다 해서 많은 책을 모아놓기만 하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나, 제아무리 많은 독서량을 자랑한다 해도 책을 마치 휴지조각 대하듯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책이란 많이 소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요,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다. 그나마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의 이야기지만 흔히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입씨름을 벌이곤 한다. 어떤 사람은 책이 많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어느 한쪽만이 책을 사랑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책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세란 책의 결과 속이 함께 모든 인간의 평생 伴侶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다.

뉴스 2 '93 서울도서전 개최일정 확정·외

표지인물 4 **짠 것갈 팔아 책 사 보내는 '큰 손'**
책의해조직위 선정 '책의 인물' 류양선씨

연중기획 6 **알레고리에 담은 인간과 시대 풍자** — 이재선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4 — 김수희의록

초점 8 **대학신입생 필독도서, 어떻게 달라졌나**
이념편향 여전하나 80년대 비헤선 뚜렷한 연성화 추세

서평 10 **김 영 「조선 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 안대회
장정룡 「삼척지방의 마을신앙」 — 김의숙

- 11 **벤베니스트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 장승일
- 정범모 외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 한준상
- 12 **경실련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 조연상
- 데이비드슨 외 「대변혁」 — 김영석
- 13 **류철균 외 「이문열」** — 신동욱
- 이창동 「늑천에는 똥이 많다」 — 김성렬

출판화제 14 **재자리 굳혀가는 우리 출판의 새 영역들**
환경 여성학 광고 생활정보 부문 출간 활기

15 **외국작가 개인전집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적 감각의 완역본 지향... 번역문학 수준 높일 계기

16 **카메라 앵글에 담은 소외지역의 삶**
「밥상공동체 사람들」 등 사회의 그늘 조명하 사전집 잇달아

이색기획 17 **한국연극사의 거목, 책으로 복원**
「동량유치전전집」

현지취재 18 **“귀양살이 설움 실학으로 꽃피우다”** — 박전걸
책의 역사를 찾아서 -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

이 책 그 사람 20 「살의 지혜」 번역한 김미경씨
「역사와 함께 발육하는 보도사진」 낸 김성배씨
21 「기술과 전향」 번역한 이기상 교수
「자유를 위한 변명」 낸 홍신자씨

세계의 책 22 **현장조사 치밀한 코끼리 종합보고서** — 배병삼

컬러화보 24 **책과 미술, 그 상상력의 행복한 만남**
「책 속의 미술, 미술 속의 책」 지상전시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김홍진